

# CLOCK 클락

## 특허기술의 창호 잠금장치 '고스트락' 출시

### 국도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성능 기준에 2배 가까운 범죄예방 성능 인정받아

창호 잠금장치 전문기업 클락(대표 김장후)이 창호를 교체하거나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능성 창문 잠금장치 '고스트락'을 개발하고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클락의 창호 잠금장치 고스트락은 기존 창호에 부속품 추가 장착만으로 침입방지, 창문추락사고방지, 손끼임사고 등 창문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취재·글\_유철수 기자  
취재협조\_클락(044.866.6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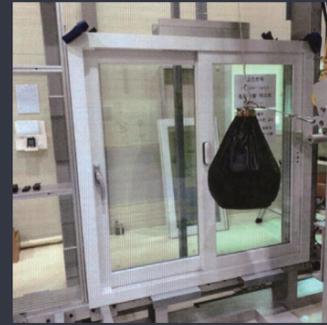
클락 설치 위치



### 침입 범죄 방지는 물론 추락방지 기능까지 더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해 평균 1만 5천여건의 주택침입사고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침입 경로를 분석해보면 창문이 5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76%의 사건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발생한다. 환기 등을 이유로 문을 열어 두면 그 틈을 노려 침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는 주거부문에 범죄예방 정책 강화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통해 창호재는 침입 방어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정책이 의무화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국도교통부에 의해 고시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적용대상을 포함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을 확대 강화한 상황이다.

클락 잠금장치가 적용된 창호



동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



시험체 정면부



시험체 배면부



고스트락은 주거 범죄예방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KOLAS 인정을 받은 공인된 시험기관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에서 국도교통부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의 2배에 가까운 2.8kN(280kg)을 버텨내며 침입 방어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클락의 창호 잠금장치 고스트락은 주거 범죄예방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KOLAS 인정을 받은 공인된 시험기관 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에서 국도교통부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의 2배에 가까운 2.8kN(280kg)을 버텨내며 침입 방어의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고스트락은 최대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조여지는 케이블타이의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욱 튼튼하다. 5가지 부품을 이용하여 기존 창호 손잡이의 내부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손잡이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외관상 변화가 없어 인테리어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사할 때에는 분해해서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화재시에도 손잡이만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기존 창문에 호환이 가능한 고스트락은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물론이고 열린 상태에서도 LOCK기능이 작동되어 고정할 수 있으며 손잡이형, 그림형, D형 등 다양한 형태의 손잡이에 사용할 수 있다.

고스트락은 방법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추락사고 방지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의 틈만 두고 창문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 창호나 방범창 설치의 고비용이 들지만, 고스트락은 5만원 미만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클락 김장후 대표는 "아이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 고스트락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며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문을 열어둔 채 문고리를 걸 수 있어 어린이가 추락하는 사고나 창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열상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손잡이의 위치를 창문 틈 중간에 설치해 취약점이던 저층 가구에서의 침입 범죄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고스트락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 전국 권역별 총판 업체를 통한 시공 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 개시



'고스트락' 구성품

클락은 고스트락 제품의 소비자 접점을 좁히고 적용 확대를 위해 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 경남권 등 권역별 창호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한 시공팀을 구성, 이용자가 요청하면 설치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클락의 잠금장치는 현재 특허 8건 해외특허 1건이 등록 출원된 상태로 클락은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후 대표는 "기존기술에 외부침입 감지가 적용된 샤시 도어용 록킹장치를 연구 개발중이며 이러한 기술은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반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기본 이론 중 접근통제(Access Control)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